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석사학위논문

해적 경제사 : 카리브 해 해적 행위
발생 요인과 효과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이 상 훈

국문초록

16세기 대항해시대가 도래하면서 유럽의 지리적 팽창은 경제적 부를 가져왔다. 특히 서인도제도가 황금의 땅 엘도라도로서 역할을 함에 따라 이 해안 지역은 유럽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카리브 해에 해적 행위가 만연했다. 이는 그 발달 과정과, 행위 자체가 해상에서 일어난 단순 범죄 행위로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경제 행위 및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 경제사적 의미가 크다. 본 논문은, 카리브 해의 해적을 경제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았을 때 그 발생이 필연적이었으며 이들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가 오늘날 유럽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큰 부분으로서 존재함을 확인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카리브 해에서의 해적 행위가 경제 연구로서 유의미함을 증명한 것이다.

주요어 : 카리브 해, 해적, 해적 행위, 사략선, 유럽경제효과

학 번 : 2011-20185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방향	2
2 카리브 해 해적의 시작	4
2.1 좋은 먹잇감 에스파냐	4
2.2 사략선의 출현	7
2.3 전쟁이 끝나다	9
3 카리브 해 해적의 발달	13
3.1 왜 카리브 해인가 그리고 버커니어	13
3.2 해적의 황금시대	17
3.2.1 해적의 상징 - 에드워드 티치(검은 수염)	17
3.2.2 규율을 세우다 - 바솔로뮤 로버츠(검은 남작)	20
3.2.3 전략적 제후 - 조지 로써와 에드워드 로우	22
3.2.4 여성해적 - 메리 리드와 앤 보니	23
3.2.5 돈벌이 희생양 - 윌리엄 키드	26
3.3 해적의 몰락	28
4 해적 발생의 경제적 이유와 효과 분석	34
4.1 삶을 위한 필연적 결정	34
4.2 해적으로 인한 경제 변화	39
5 결론	44
참고문헌	47

부록	50
왜구에 대해서	50
부록참고문헌	55

그 립 목 차

그림 1. 토르데시아스조약으로 구분된 세계	5
그림 2. 카리브 해와 중앙아메리카, 1500-1730	6
그림 3. 1702-1815에 발행된 브리스틀의 나포 허가증	12
그림 4. 북대서양 항로의 250톤 배 당 선원의 수, 1640-1775	42
그림 5. 총 생산성 인덱스, 1815-1860	42

표 목 차

표 1. 귀금속 생산과 아메리카의 비중	5
표 2. 해적에 대한 공판과 집행, 1700-1730	32
표 3. 민간무장선과 나포 허가증 사략선	32
표 4. 1700-1730년간 해운업계 평선원의 한 달 임금	35
표 5. 1700년대 초의 직업별 한 해 임금	35
표 6. 영국 사략선에 잡힌 프랑스 상선 수	41
부록 표 1. 1350-1391 왜구 침구횡수	51
부록 표 2. 홍무(洪武)연도의 왜구 침구횡수	51
부록 표 3. 가정(嘉靖)연도의 왜구 침구횡수	52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래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개봉하여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다. 또한 해적을 모티브로 삼은 일본 만화 『원피스』도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적’이라는 존재가 오늘날에서야 판타지를 자극하는 소재로서 흥행의 키워드가 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해적은 다양한 예술작품 속에서 재탄생 되었다.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 1850-1894)의 『보물섬』이나 또 다른 소설가 제임스 매튜 배리(James Matthew Barrie, 1860-1937)의 『피터 팬』 등의 소설이 등장하였고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슈웬크 길버트(William Schwenck Gilbert, 1836-1911)는 희극 『펜잔스의 해적』에서 해적들의 사랑을 이야기 했다. 또한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은 『해적』 제목의 서사시를 그려냈다. 이토록 해적은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에게 있어 모험적이며 환상적인 집단으로서 각인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범죄 행위들은 분명 이면에 존재하였고 당시의 상선이나 일반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했다. 해적의 약탈 행위는 여러 국가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으며 이 때문에 매우 성가신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적이 발생하고 이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던 과정 안에서는 일반인이었던 이들이 해적으로 변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작용하였으며 그들의 행위가 역시 유럽 경제에 미친 영향도 확실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경제학적 논점에서의 해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하였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학적 시선으로 해적을 새로이 조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2 선행 연구 분석 및 연구방향

North(1968)는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해양 운송 생산성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배의 크기, 선원의 수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생산성 변화를 이야기 했다. 결론에서는 해적들과 사략선 수의 감소가 해양 운송 생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온전히 해적에 집중된 분석이 아니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Leeson(2007)은 해적조직 형태에 중점을 둔 경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상선과 사략선 그리고 해적선에 대하여 비교 분석했다. 그는 해적 집단의 민주주의적 효율성을 강조하였고 해적선을 승선함에 있어서 충분한 유인이 존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Hillmann 과 Gathmann(2011)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영국 사략선에 대하여 경제사적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사략선에 발행된 영국 왕실의 나포 허가증 데이터와 이러한 이유로 나포된 배들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료 분석을 진행 했다. 논문은 특히 이 시기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나포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영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사략선의 나포행위가 점점 무역보다 큰 이익을 가져 주지 못하며 사략선 사업이 몰락했다고 주장하였다.

김희순(2011)은 카리브 해의 해적 환경에 대하여 연구했다. 해적 활동에 있어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말하였고 왜 하필 카리브 해에서 해적이 출

몰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연 환경에 근거해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데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보다 경제사적 시각을 추가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두고 접근한다. 따라서 해적 행위와 관련된 사료에 주목하며 내포된 경제적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이 진행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적¹⁾들의 시작을 경제 상황적인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에스파냐의 서인도제도 식민사업과 사략선의 출몰 그리고 전쟁의 종료로 인한 해양 선원들의 집단적 재편과정 등을 짚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해적의 발달과정을 살펴본다. 카리브 해에서 해적이 성장하게 된 이유, 악명 높았던 해적, 그리고 해적의 몰락과정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해적 발달의 경제적인 이유와 이들이 유발한 경제적 효과를 짚어본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및 추후 연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본래 해적은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논문 목적에 맞추어 16-18세기 초에 카리브 해에서 활동한 해적 행위자들로 한정하여 지칭한다. 해적 행위란 해상의 무장된 집단이 선박이나 물자 등을 무력적으로 탈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2 카리브 해 해적의 시작

2.1 좋은 먹잇감 에스파냐

1492년 10월 12일, 인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의 신대륙 발견이 바로 그것이다. 에스파냐 여왕 이사벨라(Isabella I, 1451-1504)의 비호아래 탐험을 나섰던 콜럼버스는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게 된다. 콜럼버스는 이 발견을 본국에 보고하였고 이 때 부터 에스파냐는 식민지 확장의 길을 나서게 된다.

1494년, 토르데시야스조약(Treaty of Tordesillas)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교황으로 하여금 대서양 한 가운데를 종으로 갈랐고 서쪽, 오늘날 브라질을 제외한 아메리카 지역은 에스파냐의 몫이 되었다. 에스파냐는 1519년 멕시코의 아스텍 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1533년에는 페루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를 공격했다. 황금의 땅 엘도라도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이와 더불어 1545년 볼리비아 지역의 포토시에 엄청난 양의 은이 매장된 광산을 발견·채굴을 시작했다. 이런 정복 활동을 통해 중남미 지역 대부분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에스파냐는 금과 은의 세계 최대 공급처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비중은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렇게 에스파냐는 새로이 발견한 땅에서 부를 착취하여 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1596년과 1600년 사이에만 에스파냐는 신대륙으로부터 3442만 8500페소²⁾에 달하는 보물을 들여왔고 이는 오늘날 7억 7,400만 달러와 같다. 당시 에스파냐 경영 자금을 위해 조달 된 주화 페소는 1644년 한 닢이 영국에서 4실링 6펜스, 오늘날 약 23달러에 해당 되는 가치였다.³⁾

2) 에스파냐계 화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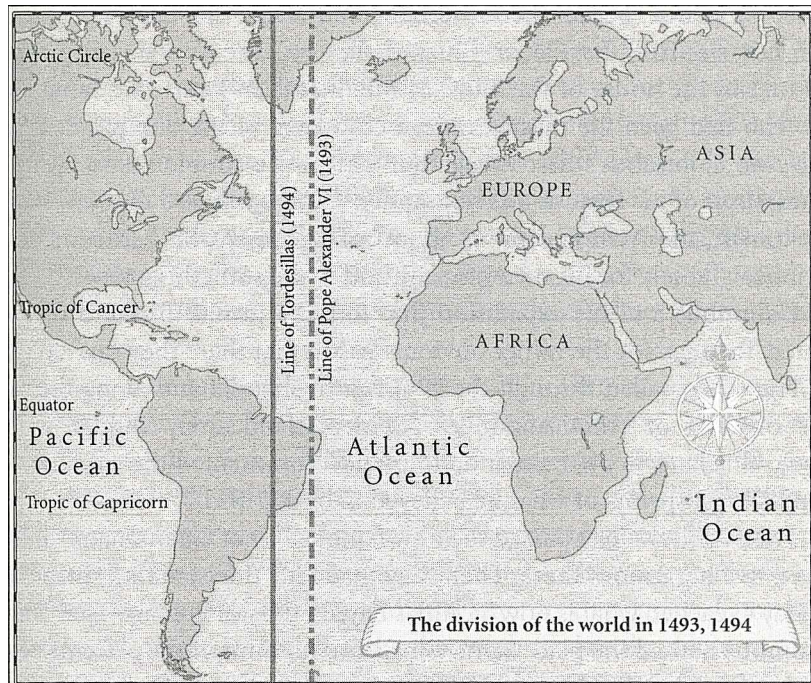


그림 1. 토르테시아스조약으로 구분된 세계

출처 : Thomas, *Rivers of Gold ; The rise of the Spanish Empire, from Columbus to Magellan* (2003)

기간	은			금				
	세계	아메리카	비중(%)	세계	아메리카	비중(%)	아프리카	유럽
1493-1600	23,000	17,000	74	714	280	39	255	148
1601-1700	40,000	34,000	85	900	590	66	200	100
1701-1800	57,000	51,000	90	1,900	1,620	85	170	108
합계	120,000	102,000	85	3,514	2,490	71	625	356

표 1. 귀금속 생산과 아메리카의 비중 (단위 : 톤)

출처 : 주경철, 『대항해시대-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2008)

16세기 말에 이르렀을 때, 스페니쉬 메인(Spanish Main)⁴⁾은 카리브 해의 모든 에스파냐 영토와 섬들, 그리고 멕시코 만까지를 아우르게 되었다. 이는 중남미 지역 대부분이었었는데 주요 항구는 쿠바의 아바나,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파나마 등이었다.

3) 데이비드 코딩리, 2007, 『낭만적인 무법자 해적』, 김혜영 역, 루비박스, pp63-64

4) 에스파냐 대해(大海)라고도 불리운다.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 카리브 해와 멕시코 만을 둘러싼 에스파냐령 아메리카 영토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곳은 아바나였다. 안데스 산맥 고지에 위치한 포토시의 은은 나귀에 실어 야마로 운반되었고 야마에 도착한 보물들은 에스파냐 해군의 보호아래 파나마 지협으로 수송되었다. 이후 다시 육로를 통해 파나마 지협을 건너 아바나로 운반하는 과정을 거쳤다. 콜롬비아 지역의 금과 은은 카르타헤나에서 모여 아바나로 운송되었으며 멕시코 지역에서 생산된 은은 육로를 통해 베라크루스로, 그리고 해운으로 아바나로 이동했다.

이렇게 아바나로 집중된 것은 플로리다와 쿠바사이를 흐르는 멕시코만류가 유럽까지 흘러가 이를 통하여 쉽게 수송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식민지에서의 부를 취득해가는 에스파냐의 성장은 다른 국가들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동시에 지리적 이유로 집결된 에스파냐의 보물선들은 탈취하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2. 카리브 해와 중앙아메리카, 1500-1730

출처 : 데이비드 코딩리, 『낭만적인 무법자 해적』 (2007)

2.2 사략선의 출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가 하사한 나포 허가증(Letter of Marque)을 빌미로 1579년, 프랜시스 드레이크(Francis Drake, 1545?-1596)는 에스파냐 보물선 ‘카카푸에고(Cacafuego)’를 나포했다. 위풍당당 영국으로 돌아온 드레이크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서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고 영국의 영웅이 되었다. 이는 민간선과 해적의 중간에 위치한 사략선(Privateer)의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에스파냐의 물자 수송은 실로 대단했다. 1550년에는 포토시 은 광산의 산출량만으로도 세계 전체의 은 생산량을 초과⁵⁾하였다. 이런 방대한 가격의 물자를 수송함에 있어서 에스파냐의 보물선들은 단독으로 항해하지 않고 보물선단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함대를 이루어 항해했다. 이런 시스템은 플로타(flota)라고 불렸다. 이는 무장된 갈레온 선이 본국까지 호위하는 호송체계였는데 1530년부터 1735년까지 해마다 이베리아 반도의 세비야를 향해 출발했다. 엄중한 호위 하에 귀국하는 이러한 대규모의 선단을 나포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에스파냐의 보물을 노리는 프랑스와 영국이 쉽게 포기할리는 만무했고 그 결과 국가의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사략선들이 창궐하기에 이르렀다. 사략선은 국가에서 민간무장선에게 적국에 대한 나포 허가증을 발급함(나포한 배와 화물이 지닌 값의 1/5을 정부에 납부)으로써 성립되는 존재였기에 국제법에 따라 인정되고 해적 행위로 인해 기소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에스파냐의 선박을 나포함으로서 적국에 대한 공격과 전리품,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푼 격이었다. 앞서 언급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략선, 드레이크의 사례가

5)앵거스 컨스텀, 2002, 『해적의 역사』, 이종인 역, 가람기획, p88

가장 대표적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략선에 대해 역사학자 Andrews(1975)⁶⁾ 는 사략선의 행위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집요하고 마구잡이식의 해상 강도 행위, 둘째는 배나 물건을 잃은 상단이 자행하는 공인된 보복 행위, 마지막 셋째로는 전쟁 시에 적의 물자를 취하는 위임된 행위이다. 이 행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하나의 목적으로 통합되어 갔다. 이 중 첫 번째는 범죄 행위이나 이러한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듯 사략선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적의 것을 빼앗는, 승인되고 묵인된 해적 행위라는 점이다. Andrews는 이에 대해 ‘단지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생충이었다.’ 라고 말하며 16세기의 해적 행위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역설했다.

Ritchie(1986)⁷⁾는 당시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에서 활동하던 해적을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해적 유형이다. 특정 국가에서는 법적인 제도 내에서 해적 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비밀리에 후원한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상업적인 해적 유형으로 상인들이 구성하거나 제국의 주변부가 용인하는 것인데 상인들이 해적을 후원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였다. 세 번째는 약탈을 일삼는 해적 유형으로 일정지역에 기지를 두고 있는 조직적인 약탈 그룹과 일정한 기지 없이 자유자재로 이합집산⁸⁾ 하는 비조직적인 약탈 그룹으로 구성된다.

Andrews와 Ritchie의 주장을 빌어 보건대 사략선은 비록 정부의 허가증

6) Andrews, K. R., 1975, "The expansion of English privateering and piracy in the Atlantic, c. 1540-1625", *Course et Piraterie*(2 vols, Paris, 1975), vol. I, pp196-230 을 Earle, Peter, 2003, *The Pirate Wars*, Thomas Dunne Books, pp21-22 에서 재인용

7) Ritchie, R. C., 1986, *Captain Kidd and the War against the Pirates*,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 를 김희순, 2011, 『카리브 해의 해적과 해류』, 트랜스라틴 17호, pp73-74 에서 재인용

8) Snelgrave, *Account of the Slave Trade*, p199; Defoe, *History of the Pyrates*, p138, p174; Morris, "Ghost of Kidd," p282 를 마커스 레디커, 2001,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박연 역, 까치, p251에서 재인용

을 받은 집단이었으나 일반적인 해적과 다름이 없었다. 에스파냐에게 있어 이들은 분명히 해적이었고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조차 드레이크를 자신의 ‘해적’ 이라고 불렀다.⁹⁾ 단지 본국의 상선에 대한 공격이 없고 해적 행위에 대한 명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일종의 공인된 해적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노략물이 너무 막대해서 전부 차지하고 싶어 사략선장에서 해적이 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런 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국의 선박 나포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전쟁의 시기가 끝이 난 뒤, 사략선에서 해적선으로의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였다.

2.3 전쟁이 끝나다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걸쳐 영국은 프랑스와 2번의 큰 전쟁을 치른다. 그 첫 번째는 1689년부터 1697년까지 있었던, 9년 전쟁이라고 불리는 대동맹전쟁(War of the Grand Alliance)이고 두 번째는 1701년부터 1713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War of the Spanish Succession)이다.¹⁰⁾ 이 두 전쟁을 지나면서 카리브 해에는 해적이 들끓게 되었고 소위 해적의 황금시대가 열렸다. 전쟁의 끝과 해적의 시작.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89년부터 1697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9년 전쟁이 있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인 태양왕 루이 14세(Louis XIV, 1638-1715)는 자국의 영토 확장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루이의 호전적인 자세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그 결과 영국, 신성로마제국, 에스파냐 등이 합세하여 연합국으로서 전쟁에 참여, 대동맹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의

9) 앵거스 퀸스탐, 2002, 『해적의 역사』, 이종인 역, 가람기획, p90

10) Findlay, Ronald & O'Rourke, Kevin H., 2007, *Power and Plen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49

결과는 승패를 떠나 각 국에게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감을 안겨 주었다.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영국은 관세를 증가하여 이를 충당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수출입 구분 없이 관세는 5%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영국은 이를 15%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 하였고 과세 기준 역시 몇대로였다. 이러한 관세의 확대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와중에 1697년 프랑스는 해군을 앞세워 시민군과 오늘날 아이티인 산토도밍고의 해적들과 함께 연합군에 대한 사략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번 노획물은 1,000만 리브르¹¹⁾에 이르렀는데 당시 환율로 변환했을 때, 약 435,000 파운드에 이르는 금액¹²⁾으로 산토도밍고의 설탕 생산 설비에 투자될 금액이었다. 이 약탈은 영국으로 하여금 본국에서 전쟁 중이던 영국의 함대를 카리브 해로 돌리게 했고 결과적으로 종전에 이르게끔 했다.

그렇게, 라이스위크 조약(Treaty of Ryswick)을 맺으면서 9년 전쟁은 끝이 나고 각국은 전시동안 피폐해진 경제위기 회복에 심혈을 쏟게 된다. 표면적으로 먼저 드러난 것은 사략선원들과 해병들의 실직이었다. 평화의 시기에 갈 곳을 잃은 이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 해적 증가에 일조했다. 한 바하마 식민지 관원은 대서양 지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서인도 제도는 해적들로 넘쳐나게 되었다고 원망 섞인 말을 했다.¹³⁾ 사실 9년의 전쟁동안 국가들은 상선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고 관세 등을 통해 국가에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래서 상선을 보호하고 해상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각 국은 사략활동을 활성화 했다. 그 덕에 오히려 개인적 규모의 해적들은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¹⁴⁾ 전쟁이 끝나자 다시 해

11) 1795년까지 사용되었던 프랑스의 화폐 단위

12) Hillmann, Henning & Gathmann, Christina, 2011, "Overseas Trade and the Decline of Privateering",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71, No 3, p739 Table 1에서 적용한 1 pound sterling = 23 livre 의 환율을 적용하였다.

13) 한영신 & 뤼팡, 2008, 『단숨에 읽는 해적의 역사』, 김정자 역, 베이직북스, p131

적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적들의 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에스파냐의 왕이었던 카를로스 2세(Carlos II, 1661-1700)가 죽고 프랑스가 에스파냐의 왕위를 계승하려는 과정에서, 프랑스 헤게모니에 위협을 느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신성로마제국 측에 서면서 발발하게 되었다. 13년이란 시간동안 유럽 국가들은 과거 9년 전쟁처럼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이 전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끝을 맞이하였는데 그 조약이 바로 위트레흐트(Treaties of Utrecht)조약이다.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위트레흐트 조약을 통해 영국은 아시엔토(Asiento)라는 에스파냐 식민지에 대한 노예공급 독점권을 얻고 많은 북아메리카의 지역을 할당받았다. 네덜란드 역시 스페인령 네덜란드의 많은 항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유럽 안에서의 세력균형이 완성 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 해군과 사략선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우선 평화조약을 계기로, 모든 사략선들의 해적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나포 허가증이 무효화가 되었다. 그림 3은 영국 브리스틀에서 발행한 사략선 나포 허가증 자료이다. 브리스틀은 영국 최초의 노예무역항이었고 런던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항이었기에 이곳에서 발행된 나포 허가증은 영국의 사략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료로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1701년부터 1713년 사이에 발행된 나포 허가증과 그 이후의 나포 허가증이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기간 동안 영국은 사략선 허가를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이 전쟁이 종료 되면서 사략선은 잠시 사라졌고 이는 곧바로 사략선원들의 실직으로 이어졌다. 비록 18세기 중반 프랑스와의 갈등이 심화되며 나포 허가증이 발행이 다시 발행되었으나 그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해적선이 사략선의 자리를 매우게 되었다.

14) Earle, Peter, 2003, *The Pirate Wars*, Thomas Dunne Books, p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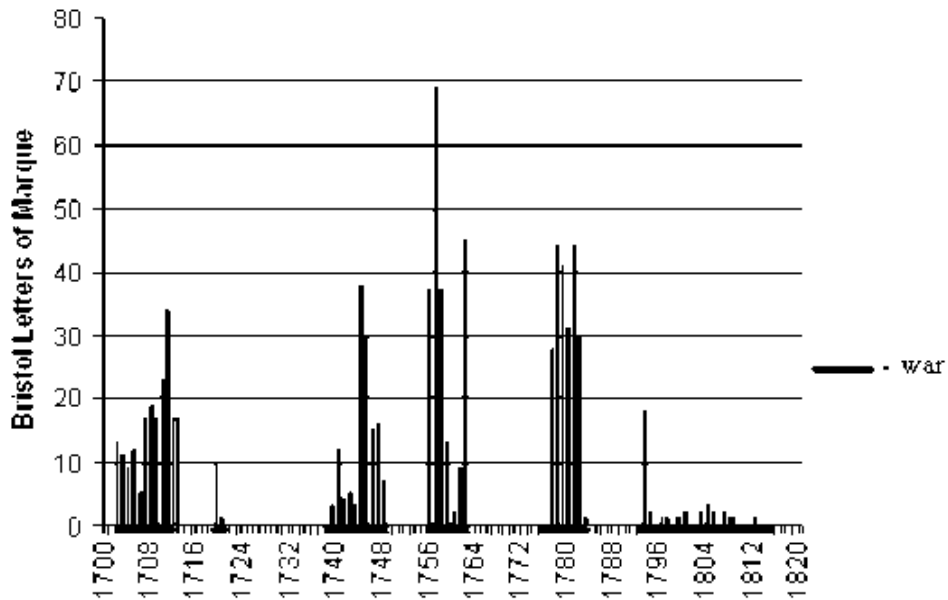


그림 3. 1702-1815에 발행된 브리스틀의 나포 허가증

출처 : Hillmann & Gathmann, “Commerce and Crime : States, Property Rights, and the War on Trade, 1700-1815” (2006)

더불어 해군들의 인력 또한 전쟁 후 감축되었다. 해군은 전쟁이 끝날 무렵 4만 9860명이었는데 2년 후에는 1만3,475명으로 급감하였다.¹⁵⁾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했고 이들에게 많은 선택권은 없었다. 결국 다수는 해적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유럽국가간의 긴 전쟁이 끝남으로써 평화의 시대는 도래했고 이와 동시에 해적들의 황금시대(The Golden Age of Piracy)도 도래했다.

15) Lloyd, *The British Seaman*, p287, table 3 을 마커스 레디커, 2001,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박연 역, 까치, p256에서 재인용. ; Leeson, Peter T., 2009, *The Invisible Hook*,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2

3 카리브 해 해적의 발달

3.1 왜 카리브 해인가 그리고 버커니어

본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해적은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아메리카 지역 카리브 해에서 해적 행위를 한 이들로 한정하고 있다.¹⁶⁾ 물론 대항해 시대¹⁷⁾가 도래하게 되면서 인도양이나 지중해에서도 다양한 종류와 출신의 해적들이 활개를 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카리브 해에서 생활하였던 해적들이야 말로 우리가 흔히 해적을 추상화 할 때 대상이 되는 존재이며 어떤 이유로든 간에 명성을 떨친 존재들이다. 그들은 카리브 해에서 시작이 되었고 카리브 해에서 끝났다. 왜 특히 카리브 해에서 이들이 생활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다.

카리브 해는 남아메리카 북쪽과 중앙아메리카의 동쪽 해안과 접하고 있는 대서양의 부속 해역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쪽으로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등의 해안에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벨리즈,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 쿠바, 히스파니올라,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 등과 접한다. 대체적으로 열대 기후에 속하는 이 지역은 그 안에서 산의 고도나 해류 등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갖는다.

이런 카리브 해에 해적들이 둥지를 튼 데 큰 몫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형적 조건이었다. 카리브 해의 섬은 만이 많고 복잡하여 해적 기지에 적

16) 엄밀히 말하면 사략선(Privateer)는 해적(Pirate)과 구별해야 하지만 해상에서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한다는 점에서 같은 해적 행위자로 간주하도록 한다.

17) 주경철, 2008, 『대항해시대-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에서 가져온 이름임을 밝힌다. 주경철은 15세기에서 18세기를 대항해시대라 칭했다. 역사학자 Anthony Reid는 1450년부터 1680년을 상업의 시대(Age of Commerce)라 칭했다.

합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작은 무인도들과 얕은 수심의 바다는 해적을 추적하는 군함으로 하여금 접근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카리브 해 대부분 지역은 물에 잘 용식되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해안 동굴, 땅굴 등과 같이 은신처로 이용되기 쉬운 지형들이 잘 발달하였다.

또한 해적들의 주요공격대상인 에스파냐의 보물선들이 유럽과 아메리카를 다니기 위해 카리브 해 지역을 거쳐 간다는 점에서 해적들에겐 지리적 조건도 중요했다. 이런 접근성은 카리브 해에 해적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금을 실은 배는 아바나의 북쪽 방향인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 동쪽의 버뮤다를 경유하여 멕시코 만류를 타고 아조레스 제도로 갔다. 그 와중에 해적들은 토르투가, 포트 로열 등에 해적기지를 세우고 이를 근거지로 삼아 이런 배들을 노렸다. 해상 노다지 지역에 해적들의 상주는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카리브 해가 해적들의 온상이 된 데에는 종교적 이유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버커니어(Buccaneer)라 불리던 해적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부를 축적하는 에스파냐에 대한 프랑스의 사략선 활동이 활발하던 시기, 유럽의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갈등은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플로리다 지역으로의 이민을 유발시켰다.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국가였으므로 핍박받던 본국을 떠나 신대륙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포트 캐롤라인에 식민지를 세우고 이곳을 은신처로 삼았다. 위그노(Huguenot)라 불린 이들은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세력으로서 가톨릭 국가인 에스파냐를 상대로 종교적 성향을 띤 해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에스파냐로 하여금 신대륙의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강력하게끔 만들었고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Felipe II, 1527-1598)는 페드로 데 메넨데스 데 아빌레스(Pedro Menendez de Aviles, 1519-1574)에게 해적에 대한 무자비한 처단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 후 데 메넨데스의 위그노 해적 소탕 활동은 매우 성공

적이었고 카리브 해에서 결국 이들을 몰아냈다.¹⁸⁾ 하지만 에스파냐에 의해 쫓겨난 잔존 세력들은 히스파니올라에서 살아남아 북쪽 해안가에서부터 그 범위를 넓히며 버커니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해적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잠시 이 히스파니올라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사실 히스파니올라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 콜럼부스는 그의 항해에서 이 섬을 에스파놀라(Española)라고 명명하고는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삼았다. 그러나 이후 프랑스가 1697년 9년 전쟁이 끝나면서 히스파니올라의 서쪽지역인 지금의 아이티를 식민지로 인양 받게 되는데 그 전부터 프랑스가 근원인 버커니어들이 지내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섬은 프랑스의 북아메리카 진출의 교두보였던 섬이었다.

버커니어는 그 시작에서부터 에스파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약탈 대상은 에스파냐의 배였다. 1620년대 에스파냐에서 이들을 제거하려 하였을 때 끝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히스파니올라 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 토르투가(Tortuga)에 거점을 세우고, 해적 구성이 다양화 되어가며 그 세력을 점차 넓혀갔다. 이 지역은 이후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자메이카를 에스파냐로부터 점령하고 포트 로열(Port Royal)을 세우기까지 버커니어들의 요새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제 버커니어 해적의 새로운 주류는 프랑스인이 아닌 영국인이었다. 영국이 세운 포트 로열은 500척의 배를 수용할 수 있는 해적들의 낙원이었고 항상 해적들이 노획물로 넘쳐났다. 자메이카의 총독은 나포 허가증을 남발하며 스페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겼다. 카리브 해는 유럽국가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점점 공해(公海)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헨리 모건(Henry Morgan, 1635-1688)이란 버커니어 해적은 영국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였다. 웨일즈 출신의 모건은 뛰어난 전

18) 앵거스 킨스텀, 2002, 『해적의 역사』, 이종인 역, 가람기획, pp100-105 ; 브렌다 랄프 루이스, 2011,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해적의 역사』, 김지선 역, 북&월드, p118

략가로 수차례의 승리를 손에 쥐었다. 그는 나포 허가증의 권리 상 에스파냐의 배를 나포할 수 있었지만 에스파냐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배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했다. 따라서 모건은 육지 공격을 더 선호했다. 해상의 약탈은 영국 정부에게 그 이익의 상당부분을 바쳐야 했지만 육지에서의 행동은 그의 자유였기 때문이다.¹⁹⁾ 1668년, 쿠바 해안가에 상륙하여 내륙도시를 약탈했고 같은 해 푸에르토 카벨로를 점령했다. 이 약탈에서 모건은 25만 페소의 노획물을 얻어서 귀환했다. 사실 푸에르토 카벨로에 대한 공격은 에스파냐와의 조약을 어긴 것이었는데 1669년 법정에서 합법적이었다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모건은 보다 칭송받았다.

모건의 다음 원정의 결과물은 파나마였다. 1670년, 해적에 의한 공격과 약탈이 진행되자 에스파냐는 파나마가 모건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시에 방화를 하여 폐허로 만들었다. 비록 기대만큼의 보물을 갖진 못했으나 모건의 업적은 가히 대단한 것이었다. 포트 로열에서 그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1670년 영국과 에스파냐 사이에는 마드리드 조약(Treaty of Madrid)이 맺어져 영국은 이미 카리브 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상태였다. 더불어 서로 간의 해적 행위를 금지하는데 동의하였던 상황이라 모건의 행동은 에스파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영국 왕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는 에스파냐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모건을 체포하여 영국으로 송환시켰다. 그러나 그는 투옥되지 않았고 국가 간 관계가 완화된 이후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는 버커니어들 중에 가장 성공한 해적이었다. 또한 영국이 17세기 말에 국익을 얻는 데에 일조하였다. 그의 해적 행위 역시 드레이크처럼 국가로부터 보호받았고 장려되었다.

그의 시기가 끝이 난 뒤 카리브 해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유럽 열강들 사이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버커니어는 더 이상 영국에게도 프랑스에게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았다.(프랑스는 에스파냐와 1688년에

19) 앤거스 퀸스텀, 2002, 『해적의 역사』, 이종인 역, 가람기획, p115

엑스라샤펠 조약(Treaty of Aix-la-Chapelle)을 맺고 평화관계가 되었다) 그러던 와중 1689년 대동맹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강력한 해군과 허가 받은 사략선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 속에서 국가에 기대지 않은 해적들이 설 곳은 없었다. 그리고 이윽고 전쟁이 끝났을 때 카리브해는 전쟁 이후 갈 곳 없는 이들을 해적으로 새로이 받아들이며 새 시대를 열었다. 바로 해적의 황금시대였다.

3.2 해적의 황금시대

본 절에서는 해적의 황금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당시를 대표하였던 해적들을 통해 그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소설가 다니엘 데포(Daniel Defoe, 1660-1731)가 책으로 상세히 남겨놓았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해적에 매우 관심을 가졌으며 동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를 엮어 *A General History of the Pyrates*를 출판했다. 여기에는 당시, 해적의 황금시대를 주름잡았던 여러 해적들의 이야기들이 상세히 담겨있다. 이 책은 해적들의 삶을 짚어보는데 큰 도움이 되며 또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사료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책을 토대로 당시 해적 행위들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은 본 논문의 목적과 합치된다 할 수 있다.

3.2.1 해적의 상징 - 에드워드 티치(검은 수염)

단순히 해적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키가 큰 체구에 위협적인 눈빛을 지녔으며 눈 아래부터 검은 수염이 덩수룩 내려와

기괴하고 어두운 인상을 만드는 사람. 이는 바로 ‘검은 수염’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에드워드 티치(Edward Teach "Blackbeard", 1680-1718)의 모습이다. 다른 해적들이 그보다 훨씬 더 악랄했고 더 성공적인 약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치는 해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분명 악명을 떨치는 해적이었고 전형적인 해적의 삶을 살았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접근은 해적 행위의 많은 면을 볼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영국 브리스틀에서 태어난 티치는 자메이카에서 사략선 업무로 지냈다. 그러던 중 1716년 말 벤자민 호니골드(Benjamin Hornigold, ?-1719)의 수하로 들어가 해적이 되었다. 카리브 해를 돌면서 그는 그 무리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었고 호니골드는 그에게 사령관의 업무를 주기도 했다. 이후 그는 프랑스 배 한 척을 나포하여 자기 배를 얻게 되고 비로소 해적선장이 되어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배에 40개의 포 문을 장착하고 앤 여왕의 복수(Queen Anne's Revenge)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는 세인트 빈센트 섬에서 그레이트 앨런(Great Allen)이라는 영국 상선을 나포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후 영국 해군 스카보로(Scarborough)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의 악명을 드높였다. 그러한 와중에 티치는 해적 스테드 보넷(Stede Bonnet, 1688-1718)을 만나 그의 배를 탈취했다. 사실 둘의 관계는 같은 해적으로서 상호 협력한 것이었지만 무능했던 보넷은 티치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둘은 카리브 해에서 나쁘지 않은 전리품들을 손에 넣으면서 항해를 계속 이어갔다.

그러던 중 1718년에 사략선장이었던 우즈 로저스(Woodes Rogers, 1679-1732)가 바하마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티치는 바하마를 떠나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했다. 그리고 오크라코크(Ocracoke) 섬 가까이에 은신처를 두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총독 찰스 에덴(Charles Eden, 1673-1722)은 해적들에게 약탈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런 경제적 이권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해적들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받

는 부패한 총독이었다. 티치는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도록 에텐과 결탁했다. 그는 에텐으로부터 해적활동에 대한 사면을 받았으나 사실 이는 새로운 해적질을 위한 근거지를 제공받는 과정이었다.

티치는 다시 바다로 나아갔고 찰스턴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배들을 나포하고 의회 일원들을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많은 노획물을 챙겼고 선원들을 치료할 약품도 얻어내었다.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와 이 같은 해적 행위에 대하여 다시 사면을 받고 부패한 관리들, 상인들과 교역을 이어갔다. 해적과 부패한 관리의 결탁이 만들어내는 암시장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검은 수염의 악행은 결국 영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했고 버지니아 총독 알렉산더 스포츠우드(Alexander Spotswood, 1676-1740)로 하여금 그의 토벌을 지시했다. 해적에 대한 적의를 불태운 스포츠우드는 두 척의 범선과 함께 60명의 해군을 보냈다. 이들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끝까지 저항하던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는 1718년 11월 22일 그의 삶을 마감했다.

그가 보였던 모습들은 해적의 일반적인 모습이였다. 해적 행위를 하고 취득한 노획물을 장물거래로 처리하고 그렇게 이윤을 챙겼다. 또한 부적절한 상거래 행위 속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부패한 관리들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관리들과 해적들의 유착은 해적들이 은신처로 사용하던 지역에 만연히 퍼져있었고 결국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은 수염은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그 악명 그대로를 가진 해적이었다.

3.2.2 규율을 세우다 - 바솔로뮤 로버츠(검은 남작)

해적들은 무질서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로웠지만 그들의 규율을 세우고 이를 지키며 지냈다. 이는 서로의 약속이었고 모두의 동의를 통해 이를 실천했다. 또한 해적끼리의 동료 의식을 가졌던 사이였고 공동체적 의식을 공유하곤 했다. 이런 모습은 황금시대에 위대한 해적 바솔로뮤 로버츠(Bartholomew Roberts "Black Bart", 1682-1722)의 행적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웨일즈 출신의 로버츠는 1719년 프린세스 호에서 2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배는 하웰 데이비스(Howell Davis, 1690-1719)선장이 이끄는 해적선에 나포되고 여기서 로버츠는 데이비스의 설득 아래 해적이 되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스의 죽음 이후 선장이 되었고 본격적인 해적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다. 키가 컸던 그는 화려하게 치장된 전투복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다. 또한 다른 해적들처럼 무자비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은 이 후 영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오히려 독이 되었다. 로버츠는 눈에 잘 띄는 과녁이었고 전투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그가 해적으로서 보낸 삶은 불과 3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로버츠는 매우 성공적인 해적이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나포한 배만 해도 470여 척에 이르렀으니 가히 짐작해 보기가 어렵다.

바솔로뮤 로버츠가 해적으로서 세운 업적 중 하나는 해적 사이의 규율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부하였던 월터 케네디(Walter Kennedy, ?-1721)가 로버츠의 대다수 선원과 전리품을 가지고 도망간 이후 그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일만한 해적 행동 계율을 수립했다. 데포의 저서에는 로버츠가 남긴 계율 11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선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둘째, 모든 선원은 공평한 분배를 받는다. 셋째, 돈을 걸고 카드게임이나 주사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넷째, 8시후엔 소등하고 이 시간 이후 술을 마시고 싶으면 갑판에 나가서 마셔야 한다. 다섯째, 단검이나 권총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한다. 여섯째, 소년이나 여자는 불허하며 이성을 데리고 바다로 데리고 왔을 때는 사형이다. 일곱째, 전투 시 배나 자기 구역을 버리면 사형 또는 유배형이다. 여덟째, 배 위에서는 누군가를 때려선 안 되나 모든 남자들의 결투는 해안에서 칼이나 총으로 결판을 내야 한다, 아홉째, 근무 중 수족을 잃거나 불구가 된다면 비축한 물품 중에서 800달러를 얻고 그보다 적게 다 치면 비례하여 적용한다. 열째, 선장과 조타수는 전리품의 20%를, 우등포수와 갑판장은 15%을, 나머지 장교들은 12.5%를 받는다. 열한째, 음악가들은 안식일에만 쉬고 특별한 허락 없이는 모두 연주한다.²⁰⁾ 이러한 조항들은 바솔로뮤 로버츠가 그의 해적들을 보다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후 다른 해적들도 이 조항들을 참고하게 되었다.

바솔로뮤 로버츠는 해적들이 가진 동료 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1720년, 로버츠는 왕립해군 요새로 쳐들어가 그곳을 유린하며 네비스에서 처형당한 동지들의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으며 해적들이 교수당한 장소인 총독 거주 구역 일대를 불질러버리겠다고 스포츠우드 총독에게 전갈을 보냈다. 1721년, 스포츠우드는 무역 및 플랜테이션 위원회에 ‘로버츠는 다른 배와 합류하여 버지니아로 올 것이며 여기에서 처형당한 해적들의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왔다.²¹⁾

로버츠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듯 해적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들만의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해적들은 자신의 목적에

20) Defoe, Daniel, 1972, *A General History of The Pyrates* by Manuel Schonhorn, Dover Publications Inc., pp211-212

21) 마커스 레디커, 2001,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박연 역, 까치, p252 주석 71

쉽게 다다를 수 있었고 상호 보호 아래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끔은 동류의식을 넘어 ‘연합’이라는, 그 이상(以上)을 이루기도 했다.

3.2.3 전략적 제휴 - 조지 로써와 에드워드 로우

해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 결정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선호되기는 하였지만 이따금씩 이들은 해적 간에 협업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해적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는 보다 자신들의 규모를 크게 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는 상호 이득을 위한 전략적인 제휴와 비슷했다. 조지 로써(George Lowther, ?-1723)와 에드워드 로우(Edward Low, 1690?-?)는 잔인함으로 그 악명을 떨쳤지만 이 둘의 조화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공동 해적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써는 노예선인 감비아 캐슬(Gambia Castle)에서 2등 항해사로 근무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존 마시(John Massey, ?-1723)와 함께 선상 반란을 일으켜 감비아 캐슬을 해피 딜리버리(Happy Delivery)로 개명하고 해적이 되었다. 로우는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태어나 자랐다. 데포는 책에서 ‘그는 어릴 적부터 해적이 되기 위해 태어난 듯 보였다’라고 묘사했는데 로우는 도둑질과 소매치기 등을 하며 자랐다. 그 역시 선상반란으로 인해 해적이 되었는데 단지 선장이 적재로 인해 식사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열두 명의 선원과 함께 그랜드 케이먼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랜드 케이먼에서 로우는 로써를 만나게 되는데 로써는 로우를 극진히 대하고 함께 할 것을 권한다. 결국 둘은 동맹을 맺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던 로우는 로써의 배에 올라타고 자신들의 배를 가라 앉혔다. 로우는 로써와 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로써가 제안한 규율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로씨는 여전히 선장이었고 로우는 그 옆에서 그를 보좌하는 위치에 섰다. 로씨로서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보다 큰 세력의 해적단을 꾸릴 수 있었고 로우는 자기보다 다소 경험이 많은 해적과의 합세하여 더 큰 노획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이는 서로에게 윈-윈 전략과 같았다.

둘은 1722년 1월, 200톤급의 그레이하운드(Greyhound)를 나포하고 약탈했으며 악랄하게 다뤘으며 사람들을 태운채로 불태웠다. 이후 몇몇의 배를 더 나포하였으며 그들은 노획물을 나뉘었다. 그러던 중 해피 딜리버리가 정비를 위해 정박하던 중 원주민에 의해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같은 해 5월, 새로운 배를 한척 나포한 둘은 결국 갈라서기로 결정하고 각각 44명의 선원을 데리고 각자의 항해를 다시 시작했다.

둘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연합했고 또다시 이익에 따라 해체했다. 서로의 세력이 부족했을 때 동맹을 맺음으로써 보다 강력한 해적단이 될 수 있었다면 서로의 상황이 어려워 졌을 때는 각자의 항해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 하에 나뉜 것이다. 결국 해적들은 전략적인 제휴를 철저히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전개하기도 했다.

3.2.4 여성해적 - 메리 리드와 앤 보니

해적들은 무조건 마초 같은 남자들만의 세계는 아니었다. 다양한 인종²²⁾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적이었고 이는 성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데포는 책에서 여성 해적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그 주인공은 메리 리드(Mary Read, ?-1721)와 앤 보니(Anee Bonny, 1700-?)다.

메리 리드는 영국 태생으로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22) 1715년부터 1725년 사이에 활동한 700명의 해적들 중 35퍼센트는 잉글랜드인, 25퍼센트는 미국인, 20퍼센트는 인디언, 10퍼센트는 스코틀랜드인, 8퍼센트는 웨일즈인, 2퍼센트는 스웨덴인,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스페인인 등 이었다 (앵거스 퀸스탐, 『해적의 역사』, p15)

태어나기 전 결혼을 했지만 남편은 바다로 나가 돌아오질 않았다. 그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는 죽게 되고 리드의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그녀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를 부양하기에 리드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리드를 아들로 속여 양육비를 받아냈다. 그렇게 남자아이로서 자라던 리드는 13세 때 프랑스 귀족의 급사로 일하였으나 곧 싫증을 느껴 역시나 남자의 옷을 입고 군함에 입대했다. 여기서 그녀는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성별을 밝힘으로써 둘은 결혼하게 되고 군대를 떠나 브레다 지역에서 음식점을 차리고 살게 된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편과 사별하게 되고 리드는 졸지에 미망인이 되었다. 또 당시 라이스위크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브레다 지역엔 평소와 다르게 더 이상의 병사들은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리드는 네덜란드로 가서 다시 남자의 신분으로 배를 타게 되는데 이 배는 영국 해적에게 나포되었다. 유일한 영국인이었던 그녀는 살아남게 되고 그렇게 해적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에 만나게 된 앤 보니는 역시나 여성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메리 리드를 잘생긴 남자로 느껴 호감을 갖게 된다. 보니는 결국 리드에게 자신의 성별을 고백했는데 공교롭게도 리드 역시 자신의 신분이 여자임을 밝히게 되고 이는 둘 만의 비밀이 되었다. 당시 앤 보니의 애인이었던 해적 존 래컴(John Rackam, 1682-1720)은 보니가 새로운 사랑에 빠진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질투하여 리드를 죽이겠다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니는 어쩔 수 없이 메리 리드가 여자임을 밝혔고 결국 셋 만의 비밀이 되고 만다.

앤 보니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유부남이었던 아버지의 하녀였는데 이 둘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앤 보니였다. 아버지는 전처와의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아

내와 앤 보니를 데리고 캐롤라이나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아버지는 상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농장을 경영하였다. 머지않아 어머니는 죽게 되고 보니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돌보았다.

그녀는 어릴 적에 영국하인을 칼로 죽인 적이 있을 정도로 난폭한 아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녀를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고 싶어하였는데 보니는 그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난한 바닷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 매우 실망하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그녀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 갈 곳이 없어진 보니는 남편과 함께 프로비던스로 갔다.

이러한 와중에 그녀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해적 활동을 사면 받고 지내던 존 래컴과의 만남이었다. 보니에게 반한 래컴은 그녀를 해적의 길로 꼬드겼다. 마침내 앤 보니는 다시 해적이 된 그를 따라 남자 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 역시 해적의 삶을 걷게 되었다.

존 래컴, 앤 보니 그리고 메리 리드는 이후 해적사냥꾼에 의해 잡혔지만 보니와 리드는 임신을 하였던 사실로 처벌받지 않았다. 데포는 그의 책에서 리드는 옥사하였고 보니의 행적은 알 수 없다고 그 끝을 적고 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가 여자 해적 이었던 사실은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당시 여성들에게 주어진 전통적 역할을 벗어던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 사실 자체로서 그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컸다.

그리고 메리 리드에게 우린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녀에게 해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시에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에는 매우 힘들었고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그녀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바다에 나가야 했다. 여성이 아닌 남성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후 해적으로서의 삶을 매우 싫어했고 기회가 있으면 그만두려 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체포되는 순간까지 재판에

서 끝까지 싸운 것을 보았을 때 이는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보이는 명백한 반증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에 있어 경제적인 상황 고려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확실해 보인다.

3.2.5 돈벌이 희생양 - 윌리엄 키드

해적이란 신분은 정략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적 행위로써 얻는 경제적 이윤을 기대 하였고 순전히 이를 위해 나포 허가증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나포 행위였으나 국가는 그 이면에서 해적 행위를 지원하였고, 이런 묵인된 거래가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돌아 왔을 때는 발뺌하여 해적 행위만 차단하기도 했다. 윌리엄 키드²³⁾(William Kidd, 1645-1701)는 바로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었다.

윌리엄 키드는 스코틀랜드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성장하여 사략선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이후 정착한 뉴욕에서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의 사업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키드는 나포 항해를 통해 돈을 벌기 원했고 역시 돈이 필요했던 뉴욕·메사추세츠의 총독 벨로몬트(Richard Coote, 1st Earl of Bellomont, 1636-1700)의 지지 아래 새로운 사략선의 선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보다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했다. 벨로몬트는 자신이 속해있던 여당 휘그당의 당원들을 구슬려 후원을 이끌어 냈고, 여기에는 영국의 왕 윌리엄 3세(William III, 1650 - 1702)의 참여도 있었다. 이는,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대동맹전쟁 중이었기에 나포 행위를 허가하는 단순 나포 허가증 발행수순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관련 된 이

23) 카리브 해에서의 사략 행위를 배제한다면 그의 해적 행위는 인도양에서 벌어진 것이지만 카리브 해에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논하는 카리브 해의 해적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들은 키드의 포획물 중 일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포획물을 해군본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일반적 규칙을 무시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다. 철저히 계획되고 공인된 해적과 다름없었다.

키드는 카리브 해를 떠나 인도양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의 나포 사업은 매우 좋지 않았다. 포획을 하면 모두에게 그 몫을 나눠 주겠다²⁴⁾ 라는 약속을 하고 모은 선원들이었으나 그의 계속된 실패로 선원들은 반항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어라는 포수와의 언쟁이었다. 제대로 손에 쥔 것이 없게 된 무어는 키드를 비난했고 이에 화가 난 키드는 그를 양동이로 내리쳐 죽였다. 이 사건은 이후 그에 죄목에 하나로서 명시된다.

그의 나포 행위는 계속 실패를 하다 1698년, 이윽고 거대한 전리품을 발견했다. 400톤급 무어인 상선 퀘다 머천트(Queda Merchant)호였다. 키드는 프랑스 국기를 달고 상선에 접근했다. 당시 상선은 사략선의 약탈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적 통관증을 가지고 다녔기에, 프랑스 국기를 달고 접근하던 키드에게 프랑스 통관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는 키드의 계략에 넘어간 꼴이 되었다. 프랑스 상선임을 보여주는 통관증 때문에 키드는 적선 나포 허가증으로 프랑스배가 되어버린 퀘다 머천트호를 나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키드는 여러 번의 나포 행위를 통해 영국 정부에서 해적으로 몰리고 있었다. 같은 해인 1698년, 해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통과되어 해적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차였다. 반대당인 토리당은 키드의 나포 행위가 휘그당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주장하기 시작했고 휘그당은 발뺌을 했다. 결국 키드는 휘그당에서 버림받아 해적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이 후 돌아온 키드는 벨로몬트와의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1699년에 결국 체포되어 영국 의회에 서게 되었다. 사실 이는 이례적인

24) 이는 해적들의 분배체계와 같다. 사략선은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배 크기가 커야했고 이로 인해 선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정 임금이 아닌, 해적처럼 노획물에 대한 분배체계를 갖게 되었다. (Leeson, "An-arrgh-chy", p1080)

일이었는데 새로운 법안에 의해 그는 뉴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송된 그는 자신의 무죄를 네 차례의 재판에 걸쳐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키드와 친분이 있었던 후원자들은 오히려 그와 엮이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었고 키드가 얘기했던 결백의 증거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투옥되어 쓴 윌리엄 3세를 향한 편지마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다.

해적 행위는 해적 개인의 경제적 이윤 추구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는 나포 허가증이라는 공인된 문서와 함께 사략선을 허가했고 동기 자체를 부의 추구에 두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시 해적이라는 명예를 씌워 제거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의 목적과 내용은 그대로 같았으나 그 이름만 사략선에서 해적선으로 바뀐 것이다. 간판만 바뀐, 국가가 양산한 해적인 셈이었다.

3.3 해적의 몰락

1698년, 영국 의회에서 새로운 해적법안(An Act for the more effectually Suppression of Piracy, 1698)이 통과되었다. 이는 1536년 제정되었던 해상 범죄 행위에 관한 법률(An Act for punysshement of Pyrates and Robbers of the See, 1536)에 이은 새로운 해적관련 법률이었다. 영국은 이를 통해, 이전에 직접 영국으로 수송하여 해결하였던 해적 재판 문제를 비용 상의 문제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적에 대한 처벌을 범죄가 일어난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신속한 기소를 위해 그리고 지역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위해서였다. 1717년에는 해적 행위에 대하여 사면을 해주겠다는 새로운 해적법안을 공포했다. 이와 같은 처리는 해적들에 대한 영국의 자세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영국은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시절부터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해적 행위에 대해 공공연한 지원을 해 왔다. 이는 영국이 대항해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다. 신대륙에서 에스파냐가 거둬들인 부는 실로 엄청났고 이 부를 탈취하기 위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해상 약탈 전략은 주효했다. 이를 토대로 영국은 기반을 닦고 해상 세력으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1588년, 펠리페 2세가 무적함대 에스파냐를 이끌고 눈엣가시이던 영국을 침공했을 때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오히려 대승하였고 이를 계기로 영국은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부상했다. 또한 보호무역법인 항해조례(Navigation Acts, 1651)를 선포하여 네덜란드와의 해상 전쟁을 도발했을 때도 이어진 세 번의 영국-네덜란드 전쟁²⁵⁾에서 실질적 승리를 거둬 그간 내정적인 이유로 약해졌던 해상 권력을 되찾았다.²⁶⁾ 새로운 식민제도와 이에 복속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생산자와 소비자들로 인해서 17세기 후반 영국 선박의 운송 톤수는 세 배로 증가했다.²⁷⁾ 그리고 마침내,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식적인 통합을 통해 대영제국으로 실질적 변화를 갖게 된 영국은 유럽 내에서 막강한 세력이 되었다.

대항해시대 초기, 사략선이라는 공인된 해적 활동을 통하여 성장을 시작했던 미약한 국가였지만 이젠 전문화된 왕립해군을 소유하고 있는 영국이었다. 또한 위트레흐트 조약을 통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아메리카에서 평화롭게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해적이란 존재는 더 이상 비호할 이유가 없는 골칫거리가 지나지 않았다. 영국은 자국에게 해가 되는 해적들에 대한 처리를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적법 등을 발전시켰다.

25) 제1차 영국-네덜란드전쟁(1652-1654), 제2차 영국-네덜란드전쟁(1665-1667), 제3차 영국-네덜란드전쟁(1672-1674)

26) 중국CCTV 다큐멘터리 대국굴기 제작진, 2007, 『대국굴기 강대국의 조건 영국』, 김문주 역, 안그라픽스, p153

27) 마커스 레디커, 2001,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박연 역, 까치, p28

해적법안과 관련한 해적의 사면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지만 완벽한 해결방안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는 앤 보니와 메리 리드에서 언급된 존 래컴이다. 칼리코 잭으로 불리기도 한 이 해적은 1719년 뉴프로비던스에 돌아와 사면을 탄원했고 당국은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육상에서의 실업자 신세보다는 해상에서 범죄자 노릇을 하는 게 낫겠다며 범선을 훔쳐 다시 해적이 되었다. 또한 블랙비어드에게서 찰스턴 봉쇄의 굴욕을 당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총독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1682 - 1735)은 ‘나는 황제의 자비로운 사면 선언문이 그들에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항복하고 그 결과로 사면을 받은 해적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들 중 일부는 다시 해적 생활로 돌아갔다’²⁸⁾라고 말했다.

사면된 해적들이 다시 해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결국 영국은 1721년 새로운 해적 법안(An Act for the more effectual suppressing of Piracy, 1721)을 통과 시켰다. 해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의미하는 법이었다. 우선 영국은 해적의 경제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해가기 시작했다. 약탈물 집산지인 마다가스카르에 근거를 둔 해적들은 프레더릭 필립스(Frederick Philipse)라는 뉴욕에 거주하는 공급책을 통해 장물을 거래하고 있었다. 당시 뉴욕 총독 벨로몬트는 필립스의 배를 나포하여 이러한 불법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 중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해적을 도와 장물 매매를 하던 자들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해적의 상품 교역은 어려워졌다.

영국은 더불어 해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도 나섰다. 카리브 해로 군함을 파견함으로써 지역의 경비를 확대하고 해적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상선을 보호할 수 있었다. 영국 군함은 카리브 해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해적 검은 수염 티치와 검은 남작 로버츠 등도 이 시기에 무너졌다.

28) 데이비드 코딩리, 2007, 『낭만적인 무법자 해적』, 김혜영 역, 루비박스, p295

당시 18세기 전반 해적의 수는 대략 1,000-2,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오늘날 추산하고 있다. 해적선들의 활동과 승무원의 규모를 보고하거나 어림잡아서 추산한 기록들에 따르면, 1716-1718년 사이 1,800-2,400명의 잉글랜드와 아메리카의 해적들이 바다를 배회했으며, 1719-1722년 사이에는 1,500-2,000명 그리고 1723-1726년 사이에는 1,000-1,500명이었다가 200명도 안되는 숫자로까지 감소하기도 했다.²⁹⁾

표 2에서는 영국 해군이 1700년부터 30년간 재판에 세운 해적들에 대한 기록들이 정리 되어 있다. 단순히 공판의 대상이 되었던 해적들의 누계가 500명 이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전투 중에 숨진 해적의 수는 이 값에서 훨씬 상회할 것이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대적인 해적 숙청 과정이 지났을 때 남겨진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포기를 하고 해적이란 신분에서 은퇴를 하거나 목숨을 내걸고 계속 해적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730년대에는 해양국가에 도전할 만큼 세력을 형성한 해적은 더 이상 없었고 해적의 황금시대는 끝이 났다.

황금시대가 지나고 난 뒤 한 세기 동안 해적 행위는 사략선에 의해 이루어 졌다. 영국은 프랑스와의 갈등이 고조 되어 가며 위트레흐트 조약으로 중지하였던 나포 허가증을 다시 발행 하였는데, 표 3은 영국 사략선의 적극적 활동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상당한 수의 선박이 해적 행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1803년부터 1815년까지의 나폴레옹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사략선원들은 앞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갈

29) Hughson, *Carolina Pirates*, p59에서 James Logan(1717)은 1,500명이라고 어림잡는다 ; 버뮤다의 총독(1717)은 Pringle, *Jolly Roger*, p181과 in HCA 1/54(1717), f. 113에서 최소한 1,000명이라고 어림잡는다 ; Woodes Rogers(1718)는 Defoe, *History of the Pyrates*, p615에서 거의 1,000명으로 어림잡는다 ; Daniel Defoe(1720)는 같은 책, p132에서 1,500명으로 어림잡는다 ;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총독(1718)은 W. Noel Sainsbury et al., eds., *Calendar of State Papers, Colonial Series, America and the West Indies*(London, 1861-), vol.31, p10에서 거의 2,000명으로 어림잡는다. 어떤 작가(1721)는 Abel Boyer, ed., *The Political State of Great Britain*…… (London, 1711-1740), vol.21. p659에서 1,500명으로 어림잡는다. 이상을 마커스 레디커, 2001,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박연 역, 까치, p236에서 재인용

공판년도	공판 대상 해적	교수형 당한 해적 수	계	누계
1701	해적선 라페호의 프랑스 선원 24명 어드벤처 개리 호의 키드 선장과 선원 9명	24 9	34	34
1704	찰스호의 켈치 선장과 선원 25명	7	26	60
1705	우스터 호의 그린 선장과 선원 17명	17	18	78
1715	돌젤 선장과 선원 2명	1	3	81
1717	드 몽, 드 코시 로셰, 에르난도 벨라미 선장의 배 선원 8명	4 6	12	93
1718	어니골드 선장에게 붙잡힌 해적 10명 블랙비어드 어드벤처 호의 선원 15명 스테드 보닛 소령과 그의 선원 34명	8 13 30	59	152
1719	해적 로스, 캐디즈, 티털 윌리 선장과 선원 1명	3 2	5	157
1720	래컴 선장과 선원 10명 메리 리드와 앤보니	10	13	170
1721	배인 선장과 선원 1명 리처드 런틀리, 목수	2 1	4	174
1722	이탈리아 해적 루크 선장과 선원 57명 블란코 선장의 선원 10명 바솔로뮤 로버츠의 선원 166명 이상	41 5 52	234	408
1723	매시 선장 레인저호의 해리스 선장과 선원 36명 핀 선장과 선원 5명 필립 로셰 선장	1 26 5 1	45	453
1724	로써 선장의 선원 16명 아처, 화이트, 선원 14명	11 2	32	485
1725	리벤지 호의 고우 선장과 선원 7명	8	8	493
1726	라인 선장과 선원 19명 윌리엄 플라이하와 선원 15명	18 3	36	529
1727	존 프리에	1	1	530

표 2. 해적에 대한 공판과 집행, 1700-1730

출처 : 데이비드 코딩리, 『낭만적인 무법자 해적』 (2007) 에서 계와 누계 항목 추가

연도	영국의 사략선 (나포 허가증 사략선 + 무장선)		나포 허가증 사략선		민간 무장선	
	선박 수	상선 중 비율(%)	선박 수	상선 중 비율(%)	선박 수	사략선 중 비율(%)
1739-1748	1,191	16.5	814	11.9	377	31.7
1756-1763	1,679	23.3	1,201	17.8	487	28.5
1775-1783	2,676	35.5	1,187	27.8	805	30.1
1793-1802	1,795	17.9	1,579	16.1	216	12.0
1803-1815	1,810	8.9	1,635	8.1	175	9.7

표 3. 민간무장선과 나포 허가증 사략선

출처 : Hillmann, & Gathmann, "Overseas Trade and the Decline of Privateering" (2011)

곳이 없어졌다. 이들의 선택은 해적이 되는 것이었으며 일시적으로 해적 행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 했다. 당시 미국은 중상주의 강대국으로 성장 하고 있었기에 특히 미국 선박이 목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선박들의 해상 보험비가 증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해적들도 1820년부터 미국해군과 영국해군의 노력 등으로 대부분이 사라졌다. 특히, 1821년에는 제임스 먼로 대통령(James Monroe, 1758-1831)이 반(反)해적 함대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물론 산발적인 해적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1828년 영국 선박 모닝스타(Morning Star)에 대한 공격이나 1832년 멕시코(Mexican)호 나포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악명을 떨치며 카리브 해를 호령하던 해적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이미 없었다.

4 해적 발생의 경제적 이유와 효과 분석

4.1 삶을 위한 필연적 결정

앞서 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많은 수의 사략선원 또 해군 등은 일자리를 잃었다. 항구 도처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선원들은 해적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한 일반 상선의 선원이었던 이들도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목숨을 내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당장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뱃사람으로 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선택지는 없었다. 다시 배를 타는 것은 그들에게 숙명과도 같았다. 본 절에서는 그 숙명의 길을 따라 가보도록 한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해적의 길을 걷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우선 일반 상선에 속해 있던 선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임금이다. 과연 만족할 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가 이들의 직업을 계속 이어가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적의 황금시기였던 시절의 선원 임금이 정리되어 있는 표 4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에 근거하여, 1파운드가 20실링이라고 계산하였을 때, 당시의 선원 한 달 임금은 25실링에서 55실링 사이였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15에서 33 파운드 가량이 된다.³⁰⁾ 이는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것치고는 적은 돈이었다. 이번엔 표 5를 살펴보자. 당시의 다른 직업군과의 임금 비교를 쉽게 확인

30) Davis, Ralph, 1962, *The Rise of The English Shipping Industry - In the 17th & 18th Centuries*, David & Charles, pp135-137

연도	샘플수	평균값	연도	샘플수	평균값	연도	샘플수	평균값
1700	34	1.32	1711	17	1.98	1721	50	1.49
1701	16	1.87	1712	15	1.50	1722	42	1.42
1702	19	2.15	1713	21	1.24	1723	39	1.53
1703	26	2.60	1714	34	1.14	1724	39	1.61
1704	22	2.44	1715	134	1.39	1725	46	1.37
1705	34	2.67	1716	79	1.31	1726	45	1.60
1706	7	2.29	1717	70	1.35	1727	20	1.51
1707	23	2.35	1718	65	1.47	1728	41	1.47
1708	18	2.21	1719	74	1.68	1729	86	1.32
1709	18	1.91	1720	98	1.47	1730	37	1.39
1710	34	2.06						

연도를 1700-1750으로 확장했을 때,

전시 : 샘플수=554; 평균값=2.20

평시 : 샘플수=1446; 평균값=1.46

표 4. 1700-1730년간 해운업계 평선원의 한 달 임금 (단위 : 파운드, 1 파운드 = 20 실링)
출처 : 마커스 레디커,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2001)

직업	임금 (연봉)
런던의 하녀	5
해군	11.5-15
교사	16
농장 노동자	18
일반 선원(상선)	33
1등 항해사(상선)	44
소매상	45
외과의사	52
선장(상선)	65
변호사	113
노스캐롤라이나 총독	300
대지주	300
뉴욕 총독	1,200
뉴캐슬 공작	25,000

표 5. 1700년대 초의 직업별 한 해 임금 (단위 : 파운드)

출처 : Woodard, *The Republic of Pirates* (2007)

해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해군들의 임금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시 해군들의 평균적인 임금은 최대 15 파운드였다. 이는 농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18 파운드보다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현저히 적은 임금은 실직자가 되었을 때 다시 해군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요소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다.

해군이 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임금이 보장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적이 되었음을 가정하고 벌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만약 이것이 충분히 수궁할만한 금액이라면 위험선호적인 성향을 띤 선원들은 해적의 길을 걸을 용의가 생길 것이다. 사실 해적의 임금을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장된 수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료로 남아있는 해적들의 노획물을 통해 미루어 짐작만 해 볼 수 있다.

1695년, 헨리 에브리(Henry Every, 1659-?)의 해적단은 600,000 파운드 이상의 귀금속과 보물을 실은 배를 나포했다. 그 결과로 각 선원에게 돌아간 것은 1,000 파운드였다. 이는 일반적인 선원으로써 40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보다 컸다. 토마스 화이트(Thomas White)의 해적단은 원정대를 약탈하고 나서 각 선원 당 1,200 파운드의 몫을 챙길 수 있었다. 또한 1720년, 크리스토퍼 콘덴트(Christopher Condent ?-1770)의 선원들은 3,000 파운드 썩을 벌었으며, 1721년, 존 타일러(John Taylor, ?-?)와 올리버 레보쉐(Olivier Levasseur, 1688/90-1730)가 공동으로 지휘한 해적들은 한 번의 공격에서 놀랍게도 4,000 파운드 썩 각 선원이 가져갔다. 심지어 해적 존 에반스(John Evans, ?-1723)가 지휘한 30명의 작은 규모 해적단도 6개월도 안되는 시간 안에 300 파운드씩 챙겼다.³¹⁾

이렇게 어마어마한 해적들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가난에 허덕이던 실업자 신세의 뱃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정기적인 수입은 아니었지만 소위 한탕주의인 일확천금의 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를 토대로 해적이 되어가는 사람은 점점 많아졌다. 심지어 해적들에게 잡혔을 때 많은 이들이 기꺼이 해적집단의 구성원이 되고자 했다는 기록도

31) Konstam, *Scourge of the seas*, p98, Johnson, *A General History of the Pyrates*, p28, p340, p480, p485, Marx, "The Brethren of the coast" p161, p163를 Leeson, Peter T., 2007, "An-arrgh-chy: The Law and Economics of Pirate Organiz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5, no. 6, pp1077-1078에서 재인용

있다.³²⁾

해적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에 일조한 또 다른 이유는 선원으로서의 선상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데에 있다. 해적 가담자에는 왕립 해군출신도 있었지만 상선에서 해적선으로 갈아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³³⁾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

상선은 먼 항해를 하고 무역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문제는 이 상선의 소유자는 배에 승선하여 항해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즉, 선원들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했기에 선원들의 기회주의나 적당주의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에 선주들은 선장을 고용함으로써 대리인을 세웠다. 마치 오늘날 기업에서 CEO를 두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고용되는 선장은 어느 정도 배의 주식을 소유한자이거나 선주와의 가족 관계자로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선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선장이 선원처럼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일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으며 혹시 있을 문제에 대한 처벌이 쉬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장은 독재권을 일임 받게 되고 자연스레 위계적인 선상 환경이 조성 되었다.

가히 선장의 권력은 대단했다. 이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기기 위해 자신의 물품들을 더 선적하는 대신 선원들의 식사량을 줄이곤 했다. 또한 선원들 임금을 속이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식민지의 통화로 지불하기도 했다. 선장의 폭력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에 못 견디 선원의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Rediker(1987)는 1700년부터 1750년 사이의 기록들 중에 반 정도가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해적이 된 자는 5퍼센트 가량이 된다고 이야기 했다.³⁴⁾

32) Leeson, Peter T., 2007, "An-arrgh-chy: The Law and Economics of Pirate Organiz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5, no. 6, p1078

33) Leeson, Peter T., 2007, "An-arrgh-chy: The Law and Economics of Pirate Organiz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5, no. 6, p1055

34) Leeson, Peter T., 2007, "An-arrgh-chy: The Law and Economics of Pirate Organiz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5, no. 6, p1062 ; 마커스 레딤키, 2001,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박연 역, 까

이와 대조적으로 해적들의 삶은 보다 자유로웠다. 해적들은 우선적으로 선주가 바로 해적 본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그 몫을 챙겨갈 수 있었기에 해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었다. 해적들은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해적선의 선장을 선출했고 투표를 통해 선장을 바꿀 수도 있었다. 또한 선장에게 쏠릴 수 있는 권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타수를 두어 감시의 역할을 맡겼다. 이와 더불어 해적들은 다문화적인 성향이 강했기에 기존 사회와는 달리 인종이나 신분을 토대로 한 계급에 대한 차별도 없었다. 해적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으며 그들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설립했다.

이러한 차이는 상선에서 고된 삶을 살던 이들이 해적이 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했다. 해적들은 기존 상선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고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서 존재 할 수 있었다. 실로 유토피아 속에서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적이 된다는 것이 마냥 유토피아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었다. 해적이 되는 데에 있어 감수하여야 할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해적으로서의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잡힐 위험 역시 수반하는 것이었다. 잡힌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둘째는 범죄자가 된다는 양심의 문제였다. 해적 행위는 약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는 등의 범법 행위였다. 또한 범죄 행위를 떠나 개인의 가치관 문제이기도 했다. 이는 해적이 되는 데에 큰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위험을 무릅쓴 채로 해적이 되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함이 첫째였고 환경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함이 그 둘째였다. 분명 해적이 됨으로써 잃는 것도 있었지만 해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대 수입과 이상적 삶은 매우 달콤했다. 위대한 해적 바솔로뮤 로버츠는 해적이 되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직한 노동

치, p237

을 하면 소득은 박하고 임금은 낮고, 일은 고되다. …… 반면 이 일에는 풍족함과 포만이 있고, 즐거움과 편안함이, 자유와 힘이 있다. …… 아니, 나는 즐겁고 짧은 삶을 목표로 삼겠다.’³⁵⁾ 해적이 되는 것은 굶고 짧게 살기 바라는 위험선호자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4.2 해적으로 인한 경제 변화

해적을 단순 범죄 집단으로서 거론하고 평가하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다. 이들의 존재가 가져온 유럽사회의 변화는 마치 나비효과처럼 매우 컸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해적 행위를 이용한 국가들의 약탈이 가져온 결과가 그러했고 해적 그 자체로서 가져온 결과 역시 그러했다. 이는 당시 유럽의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유럽국가 형성에도 크게 작용했다. 본 절에서는 ‘해적은 단순한 사회악이 아니라 유럽의 경제변화를 유발한 결정적인 집단이었다.’를 가정으로 그 증거들을 살펴보려 한다.

에스파냐가 식민지에서 부를 착취하고 있을 때, 후발 주자였던 프랑스나 영국, 네덜란드 등은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 사략선을 운행하였음을 앞서 언급했다. 또한 이 사략선들의 주요 업무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인 해적활동이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사략선들이 국가에 안긴 부는 어마어마했다. 해적활동이 부의 이전을 촉진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영국의 대표적 사략선장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에스파냐 보물선 ‘카카푸에고’에서 약탈하였을 때, 배에 실린 재물은 귀금속 식기류 13상자, 금 80파운드, 은 26톤이었고 게다가 등록되지 않은 40만 페소 상당의 보물도 있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1,2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드레

35) 브렌다 랄프 루이스, 2011,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해적의 역사』, 김지선 역, 북&월드, p92

이크가 몇 달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계산한 보물의 가치들은 오늘날 6,800만 파운드 가량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헌납되었다. 그녀의 통치 15년 동안 영국은 매년 100-200척의 사략선이 출범했고, 그들은 영국 정부에 년 평균 10만 5,000-30만 프랑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³⁶⁾

이러한 부의 강탈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1628년, 네덜란드의 사략선장 피에트 헤인(Pieter Hein, 1577-1629)의 사략함대는, 아메리카로부터 출발한 21척의 에스파냐 보물선단을 포착하여, 쿠바 연안 마탄자스만에서 이를 포획하였다. 이곳에서 헤인이 획득한 금, 은, 귀중품의 가치는 무려 1150만 길더³⁷⁾였는데 이것은 당시 네덜란드 1년 전비에 거의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 한 번의 해적 행위로 에스파냐는 막대한 손실을 네덜란드는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듯 에스파냐가 독식 할 수 있었던 아메리카의 엄청난 부는 타 유럽 국가들의 해적 행위로 인해 각 국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여전히 에스파냐는 그 대부분을 재정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아직도 옮겨야 할 부가 있었기에 다른 나라들의 도전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비록 국가 주도의 해적활동이었으나 이러한 영향력은 상당했고 이후 유럽 사회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었다.

에스파냐는 새로운 유럽 국가들의 신대륙 진출 야심과 직면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해군력 확장이 필수였고 군사재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일례로 1588년, 펠리페 2세가 130척의 전함과 8,000 명의 선원 그리고 20,000 명의 병사로 무장하여 영국을 침공하였으나 드레이크의 반격으로 전투력의 절반 이상을 잃고 패퇴했으며 이로써 에스파냐는 크나큰 손실을 얻게 되었다. 식민지 경제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에스파냐는 계속되는 타국의 사략활동으로 손

36) 한영신, & , 2008, 『단숨에 읽는 해적의 역사』, 김정자 역, 베이직북스, p37

37) 17세기부터 2002년까지 사용된 네덜란드의 화폐 단위

실이 누적되어갔고 심지어 1629년에는 플로타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보물선이 출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대로 영국은 크롬웰이 에스파냐에게서 자메이카를 뺏고 이곳을 전진기지 두면서 엘리자베스 1세 때처럼 사략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렇게 영국은 국고를 채워나갔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기간 모든 영국의 상선 중 41%에 달하는 수가 사략선이었다.³⁸⁾

표 6은 카리브 해가 아닌 프랑스 낭트 항에서 출발한 선박에 대한 영국의 해적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낭트 항이 카리브 해가 속한 대서양 삼각무역의 중심 프랑스 항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통해 카리브 해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를 영국이 유럽 국가로부터 탈취 하였을지 미약하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당시 낭트 항은 프랑스 해외무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항이었다. 평균적으로 약 20년간 영국이 낭트항에서 탈취한 상선은 20%이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해외무역의 2%를 탈취한 것과 비슷하다. 이를 카리브 해로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영국의 해적 행위는 영국의 부를 증강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해적과 사략선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해군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렇게 영국의 왕립해군은 성장·발전했고 방어 위주의 소규모 해군 체계에서 강한 대규모 해군 체계로 이행되었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네덜란드도 같은 상황이었으며 결국 국가적 차원의 해적활동은 이들 국가가 북아메리카 지역에 거점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간	상선의 수	
	낭트 항 출발	잡힌 프랑스 상선 비율(%)
1689-1697	300	17.0
1702-1713	473	22.3

표 6. 영국 사략선에 잡힌 프랑스 상선 수

출처 :Hillmann, & Gathmann, “Overseas Trade and the Decline of Privateering” (2011)

38) Hillmann, Henning & Gathmann, Christina, 2011, “Overseas Trade and the Decline of Privateering”,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71, No 3, p743

앞서, 해적 행위를 이용하였던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변화 분석을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해적 그 자체가 가져온 경제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해적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손실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헨리 모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해상 나포가 아닌 도시를 파괴하는 수준의 해적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해당 지역으로 하여금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또한 장물거래를 위해 암시장을 형성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버지니아의 기사에 따르면 해적들이 아메리카 사업에 준 타격은 전쟁이 미친 타격보다 더욱 컸다.³⁹⁾

두 번째로는 해적은 해운수송의 생산성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 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적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North(1968)는 해적이 사라지고 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험했다. 우선 결론은 이런 해적과 사략선의 감소가 시장과 국제무역의 성장과 함께 이후 세기에 해운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로서 작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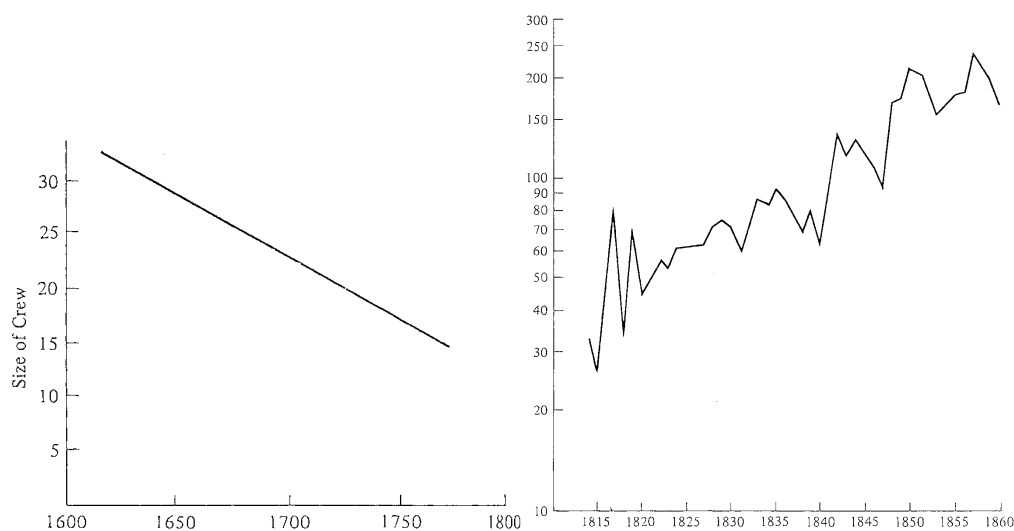


그림 4.(좌) 북대서양 항로의 250톤 배 당 선원의 수, 1640-1775

그림 5.(우) 총 생산성 인덱스, 1815-1860

출처 : North, "Sources of Productivity Change in Ocean Shipping, 1600-1850" (1968)

39) 한영신 & 뢰광, 2008, 『단숨에 읽는 해적의 역사』, 김정자 역, 베이직북스, p143

는 사실이다. 해적이 사라지자 일단 해적들과의 전투를 대비해 선적하는 총기류나 의료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대신 물품 선적량을 증가시켰고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 사람 당 선적량을 확대 하였다. 그리고 해적의 감소는 해상 보험료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이유들로 North는 해적의 감소가 해운 수송의 생산성 증가에 잠재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하였다.⁴⁰⁾

세 번째로는 해적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쇠퇴를 가져왔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을 목적으로 1621년 설립되었다. 하지만 카리브 해의 해적들의 사략 행위는 서인도 회사 역시 비켜가지 않았다. Parker(1979)에 의하면 1800대 이상의 네덜란드 배들은 1626년부터 1634년간 사략선에 의해 잡히거나 파괴되었다. 또한 1647년 브라질에서 얻은 이윤이 40만 플로린⁴¹⁾이었는데 반해 방어를 위해 1100만 플로린을 사용하였다.⁴²⁾ 결국 서인도 회사는 동인도 회사와 달리 적자에 허덕였고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해적의 존재가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 속에서 카리브 해의 해적의 존재는 그리 길지 않았다. 에스파냐의 신대륙 진출을 시기한 국가들의 개입에서 카리브 해의 해적은 시작되었고 이 후 에스파냐에게서 충분한 부를 취한 국가들의 처단에서 카리브 해의 해적은 끝이 났다. 해적을 단순히 범법자 집단으로 치부하기에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들이 세계에 가져온 변화는 매우 크다. 그렇기에 해적은 분명히 경제 집단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경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40) North, Douglass C., 1968, "Sources of Productivity Change in Ocean Shipping, 1600-1850",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September/October, 1968)

41) 서유럽 최초의 주조된 금화로 근대시대에는 유럽전체의 기축통화로서 사용되었다. 당시 환율은 대략 1 길더 = 0.9 플로린, 1 파운드 = 0.871 플로린

42) Parker, Geoffrey, 1979, *Spain and The Netherlands 1559-1659*, Fontana Press ; Findlay, Ronald & O'Rourke, Kevin H., 2007, *Power and Plen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84

5 결론

본 논문은 카리브 해의 해적들을 해상의 단순범죄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왜 해적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발생의 연원에 대한 의문과 ‘해적의 활동이 미친 경제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경제 효과에 대한 의문의 답을 모색하여 보는 데에서 출발했다. 분명 이들을 경제학적으로 재탐색 하여 본다면 해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있었다. 해적 행위에서 유발된 범죄들은 필히 부정되어야 할 사안들이지만 살인, 약탈, 방화 등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지엽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본 논문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세세한 접근보다 ‘무엇을’ 그리고 ‘왜’ 하였는가라고 크게 짚어보는 것이 제를 같이 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며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은 에스파냐에게 큰 부를 안겨다 줌과 동시에 그 부를 뺏으려는 자들도 함께 안겨 주었다. 이러한 탈취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된 해적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사략선이란 이름으로 에스파냐에게서 부를 탈취해 갔고 카리브 해에서 자리를 잡으며 그들의 이권을 넓혀갔다. 이윽고 에스파냐는 이들 국가와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냈다. 그리고 더 이상 쓸모없어진 사략선원이나 해군들은 해적이 되었다.

해적들이 카리브 해에 자리를 잡았던 데에는 세 가지의 직접적 이유가 존재했다. 섬과 만이 많아 은폐하기엔 최적의 지형적 조건이 그 첫째였으며 에스파냐의 보물선단이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그 둘째였

다. 또한 세 번째 조건은 신교도들이 유럽본토를 떠나 자유를 찾아 올 수 있었다는 종교적 조건이었다. 특히 이 세 번째 이유로 인해 프랑스의 위그노 해적들이 발달하게 되고 에스파냐가 이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잔당들과 다른 이민자들이 섞여 버커니어라는 새로운 해적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후 대동맹전쟁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갈 곳 없어진 이들은 새로운 해적 시대를 열었고 바로 해적의 황금 시대였다. 각 국 정부는 이러한 해적 세력의 확장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이 아님을 알고 제거하기 위한 해적 법안을 만들어 소탕작전에 나섰다. 그리고 1730년대 이후, 과거 영광의 카리브 해 해적은 사실 상 소멸되었다.

이들이 해적의 길을 걷게 된 것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 상황이었다. 그들이 받던 임금은 당시 사회 수준에 비해 부족했고 해적이 되었을 때 얻게 될 지도 모르는 일확천금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또한 선원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어려움도 해적의 길이 된 이유였다. 열악한 선상 환경과 비교하여 해적의 자유스러움이 가져오는 만족감은 매우 컸으며 해적 행위에서 오는 불안감과 죄책감만 떨친다면 해적의 길을 걷는 것은 자연스런 선택이었다.

이런 카리브 해의 해적들의 존재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국가적인 차원과 해적 자체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로 인한 국가적인 차원의 변화는, 아메리카로부터 가져온 부의 이전 효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유럽국가의 성장 변화에 일조했다는 점이다. 해적 행위 자체가 가져온 영향은 첫째로는 지역 경제의 손실을 가져왔고 둘째로는 해운 수송의 생산성에 음(-)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는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의 몰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16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카리브 해에서 활동한 해적, 이들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세계에 미친 영향도 상

당했다. 단순 해적질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 경제학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들의 행위는 유의미한 것이었으며 경제사에 큰 획을 긋는 사안이라 단언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해적이 된 이들에 대하여 위험선호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해적이 된 이유를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해적이 되었을 때 얻게 될지도 모르는 가장 부정적인 결과는 ‘죽음’이다. 이를 상쇄할 만큼의 일확천금의 기회가 어느 정도의 효용을 제공하는지 수치적으로 확인 해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적의 주 수입원이었던 장물거래나 노예거래에 대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해적들이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행사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해적들이 상선 나포를 하였을 때 노획물 중에는 현금화 하여야 할 물건들이 많았다. 노예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품목들이 그대로 신대륙에서 소비되었다면, 이 과정이 어느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카리브 해의 해적들이 야기한 경제효과분석을 확장시키는 데에 적절하게 작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희순, 2011, “카리브 해의 해적과 해류”, 트랜스라틴 17호, pp68-76

데이비드 코딩리, 2007, 『낭만적인 무법자 해적』, 김혜영 역, 루비박스

브렌다 랄프 루이스, 2011,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해적의 역사』, 김지선 역, 북&월드

마커스 레디커, 2001,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 상선 선원, 해적, 영-미의 해양세계, 1700-1750』, 박연 역, 까치

앵거스 컨스텀, 2002, 『해적의 역사』, 이종인 역, 가람기획

주정철, 2008, 『대항해시대-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중국CCTV 다큐멘터리 대국굴기 제작진, 2007, 『대국굴기 강대국의 조건 영국』, 김문주 역, 안그래픽스

한잉신 & 뤼광, 2008, 『단숨에 읽는 해적의 역사』, 김정자 역, 베이직북스

Davis, Ralph, 1962, *The Rise of The English Shipping Industry - In the 17th & 18th Centuries*, David & Charles

Defoe, Daniel, 1972, *A General History of The Pyrates* by Manuel Schonhorn, Dover Publications Inc.

Earle, Peter, 2003, *The Pirate Wars*, Thomas Dunne Books

Engerman, Stanley L. & Fogel, Robert W., 1972, *The reinterpretation of American Economic History*, Harper and Row

Exquemelin, Alexander O., 1969, *The Buccaneers of America* by Alexis Brown, Dover Publications Inc.

Findlay, Ronald & O'Rourke, Kevin H., 2007, *Power and Plen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dman, David, 1997, *Spanish Naval Power, 1589-16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ding, Richard, 1995, *The Evolution of The Sailing Navy, 1509-1815*, St.Martin's Press

Hillmann, Henning & Gathmann, Christina, 2006, "Commerce and Crime : States, Property Rights, and the War on Trade, 1700-1815",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Convention Center, Montreal, Quebec, Canada Online

Hillmann, Henning & Gathmann, Christina, 2011, "Overseas Trade and the Decline of Privateering",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71, No 3, pp730-761

Johnson, Charles, 2010, *A general History of the Robberies & Murders of the Most Notorious Pirates* by David Cordingly, Lyons Press

Leeson, Peter T., 2007, "An-arrgh-chy: The Law and Economics of Pirate Organiz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15, no. 6, pp1049-1094

Leeson, Peter T., 2009, *The Invisible Hook*, Princeton University Press

Loades, David, 2000, *England's Maritime Empire*, Pearson Education

Morgan, Kenneth O., 1984, *The Oxford History of Britain*, Oxford University Press

North, Douglass C., 1968, "Sources of Productivity Change in Ocean Shipping, 1600-1850",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September/October, 1968), pp953-970

Parker, Geoffrey, 1979, *Spain and The Netherlands 1559-1659*, Fontana Press

Rodger, N.A.M., 2004, *The Command of The Ocean*, W.W.Norton & Company

Starkey, David J, 1990, *British Privateering Enterprise in the Eighteenth Century*, University of Exeter Press

Thomas, Hugh, 2003, *Rivers of Gold ; The rise of the Spanish Empire, from Columbus to Magellan*, Random House Trade Paperbacks

Woodard, Colin, 2007, *The Republic of Pirates*, Harcourt, Inc.

부록

왜구에 대해서

카리브 해 해적들이 시작되고 끝이 났던 활동 시기는 16세기부터 18세기였다. 그들은 이 약 두세기 동안 세계 경제사를 흔들었고 역사에 암적인 존재로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반대쪽 바다, 동아시아에도 그들과 비슷한 해적이 존재했다. 당시 지역 사회를 흔들고 역시나 암적인 존재 — 특히나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기록되는 존재들이 바로 아시아의 해적, 왜구다. 이들도 단순히 해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들 역시 아시아에서 경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이었다. 카리브 해의 해적들과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던 이들을 알아봄으로써 동서양의 해적들을 간접 비교를 해 보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영(2007)은 저서인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에서 왜구는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또한 정치·외교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인 재원의 약탈이나 사람의 납치를 목적으로 한 일본인으로 구성된 무장집단 내지는 그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등장하였던 왜구는, 백제가 정치·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였고 신라에 대한 침공 역시 정치적인 의도인지 단순 약탈 행위인지의 여하가 밝혀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여 고려 고종 10년(1223) 사료에 등장한 왜구부터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초기 왜구들의 영향력은 그리 강력하지 않았다. 왜구의 활동이 기록된 1223년부터 1265년까지 약 40년간 고려의 왜구 발생 횟수는 1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부록 표1에서 1350년부터 1391년 고려 말까지 같은 40년간의 왜구의 침구는 296회에 이른다. 단순 수치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14세기 부터는 왜구의 해적 행위는 매우 확대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본토인 일본의 경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226년과 1232년,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 규슈 지방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또한 1259년의 침구 때도 4년간의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왜구들의 약탈은 기근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과 같았다. 하지만 1336년, 125년간 일본의 평화를 유지해 왔던 호조가문의 몰락으로 남북조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내란 상태가 되었다. 통제가 없는 이런 전란 속에서 왜구의 활동은 확대 되었고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본격적인 왜구의 시작이었다.

이 시기가 되면서 왜구는 고려뿐만이 아닌 러시아의 연해주와 명의 해역에도 출몰했다. 이런 점은 사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부록 표 2에는 주원장의 재위기간 왜구의 출현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주원장은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쳐들어오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

연도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횟수	6	3	10	1	1	2	0	3	10	4	5	4	2	1
연도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1373	1374	1375	1376	1377
횟수	8	3	3	1	0	2	2	4	11	6	13	5	15	32
연도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횟수	23	22	14	14	8	13	12	11	0	4	9	5	3	1

부록 표 1. 1350-1391 왜구 침구횟수

출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왜구 침구 기사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2007)

홍무 ⁴³⁾ 연도	1(1368)	2	3	4	5	6	7	13	16	17	18	22	23	24	26	27	31
침구횟수	1	8	3	3	4	2	4	2	1	2	1	1	1	2	1	2	3

부록 표 2. 홍무(洪武)연도의 왜구 침구횟수

출처: 田中健夫. 1982, 208쪽의 연표 및 鄭樸生, 『明日關係史の研究』, 雄山閣, 1984, 217-273쪽의 표를 참조로 작성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2007)

43) , 명의 첫 번째 연호이며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의 재위기간의 연호이다. 1368년부터 1398년까지 사용되었다.

다. 『고려사』에는 ‘우왕 13년(1387년), 정지가 상서해 스스로 동정(대마도 정벌)을 청하며 말하기를, 근년에 명이 왜구의 정벌을 소리 높여 말하니, 만약 우리나라 각지에 그 병선들을 정박시키면, 비단 그 뒷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허실을 엿 볼 우려가 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다.⁴⁴⁾ 이런 자료들은 명이 왜구의 활동으로 골머리를 썩자 고려에게 왜구를 진압하도록 요구하였던 점을 짐작케 한다.

1402년, 남조와 북조 사이의 오랜 전쟁을 끝낸 쇼군 아시카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는 명과 국교를 맺고 명에 대한 조공무역을 진행하였다. 이후 150년간 이어지던 이 무역은 1547년을 마지막으로 단절되었고 이로써 명과 일본 사이의 합법적인 교역이 중단되었다. 또한 일본 막부를 형성하던 오우치씨(大内氏, おおうちし) 가문이 1551년 끝나면서 일본 전역이 새로운 전란으로 휩쓸리자 이를 틈타 왜구는 다시 부상하여 명으로 재진출 했다. 부록 표 3을 살펴보자. 침구횟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1552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때부터 13년간 총 침구횟수는 533회에 이른다. 이는 1552년 이전까지의 침구횟수가 17회라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30배 이상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 무렵에는 왜구에 의한 밀무역이 횡행하고 있었다. 일본은 16세기 은, 황동, 황금 등을 발견했고 명의 비단과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가정 ⁴⁵⁾ 연도	2(1523)	3	12	13	14	19	21	24	26	27	28	29	30	
침구횟수	1	1	1	1	1	2	1	1	2	2	1	1	2	
가정연도	31(1552)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침구횟수	13	64	91	101	68	25	32	56	15	22	20	18	5	3

부록 표 3. 가정(嘉靖)연도의 왜구 침구횟수

출처: 田中健夫. 1982, 82쪽의 표를 참조로 작성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2007)

44) 『고려사』 권 113, 열전 제26, 정지전 을 이영, 2007,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의 현장 을 찾아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13에서 재인용.

45) 嘉靖, 명의 세종 주후충(朱厚 聰, 1507-1566)의 재위기간의 연호이다. 1522년부터 1566년까지 사용되었다.

던 터였다. 하지만 이 둘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정화(鄭和, 1371-1433)의 원정이 끝나고 명은 개인적인 항해와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다. 유일한 무역의 기회는 공납을 통한 것이었는데 더 이상 명과 일본 사이에는 조공무역이 없었기에 밀무역은 자연스러운 시장이었다.

이런 상인들의 거점은 중국 해안 주변에 있었는데 1547년 가장 유명했던 쌍서(雙嶼)항구가 파괴되면서 구강(丘康)항구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복건(福建)성의 밀수기지로 떠올랐다. 왜구들은 이 밀수업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고 이 과정에서 왜구해상무역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일본인들만으로 구성된 왜구들에 많은 수의 중국인들도 가세하게 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이는 왕직(王直, ?-1559)인데, 그는 명나라 상인 출신으로서 왜구의 왕으로 불리며 완전 무장한 함대의 수호를 받는 무역 조합의 수장이 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이는 정성공(鄭成功, 1624-1662)이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난 그는 복건성의 성공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적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명·청교체기였던 시대에 중앙정부 권력 공백을 틈타 자신의 세력을 넓혔다. 그의 선단은 복건성 해안과 대만 섬의 대부분을 지배했고 해적으로 활동하며 선박들을 습격하곤 했다. 정성공은 아버지가 처형당하자 그의 선단을 이끌고 대만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세력을 키워 남중국해의 수역을 완전히 지배하기도 했다.

이런 왜구들의 세력은 일본의 사회변화에 의해 종말로 치닫는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가 1585년 시코쿠와 1587년 규슈에 상륙하면서 왜구들을 향한 대대적 소탕이 일어났다. 그리고 일부 계급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무기 소지는 불법이 되고 해적들의 교역이나 밀수를 묵인하면 봉토를 몰수한다는 법률도 만들어졌다. 이후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 1604-1651)는 ‘쇄국령’을 인가했다. 이로써 소수의 허가증 소지자 이외에 바다로 나서는

것은 불법이 되었고 이에 맞는 처벌은 응당 처형이었다. 강력한 정권과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왜구들의 해상무역은 더 이상 전개가 불가했다.

1853년, 일본은 다시 개항을 하였다. 하지만 해상에는 이미 유럽세력들이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밀수입을 통해서도 더 이상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었다. 결국 왜구들은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왜구는 카리브 해의 해적들과 달리 그 시작이 정부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존재들이 아니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던 범죄 집단이었다. 그리고 무고한 이들에 대한 약탈이나 노획들은 왜 왜구가 동북아시아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는지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역거래가 없던 시기에 왜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밀무역을 통해 무역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단순히 해상무역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던 필요한 존재들이기도 했다.

부록참고문헌

브렌다 랄프 루이스, 2011, 『그림과 사진으로 보는 해적의 역사』, 김지선 역, 북&월드

앵거스 컨스텀, 2002, 『해적의 역사』, 이종인 역, 가람기획

윤성익, 2007,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이영, 2007,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잉신 & 뤼팡, 2008, 『단숨에 읽는 해적의 역사』 김정자 역, 베이직북스

Abstract

Economic History of Pirates : the emergence factors and the effects of the piracy in the Caribbean

Lee, Sanghoon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the 16th century, the Age of Discovery, the geographical expansion of Europe brought economic wealth. Especially, the role of the West India as the land of Gold, called El Dorado, made this place a conflicting arena for European countries. In this process, the Caribbean was prevailed in piracy. The piracy was not just considered as a simple criminal act happened at sea. It is very meaningful in economic history because the piracy is closely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and circumstances of the European countries.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development of pirates in the Caribbean was inevitable and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m laid the foundation of recent European society.

Keywords : Caribbean, Pirate, Piracy, Privateer,
Economic effects on Europe

Student Number : 2011-20185